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Vincent
van
Gogh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
내 동생 테오에게

빈센트 반 고흐 지음 | 이승재 옮김

반 고흐의
영혼의 그림들
150여 컷 이상
수록!



◆ 일러두기

- * 『빈센트 반 고흐의 편지 전집』(갈리마르 출판사)에서 선별하여 엮되, 날짜는 Van Gogh Museum과 Het Huygens Instituut이 정리한 아카이브(vangoghletters.org)를 참고하였다.
- * 그림 제목은 검색이 편리하도록 영어로 표기하였다.

빈센트 반 고흐, 영혼의 그림과 편지들



세상에서 나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
내 동생 테오에게

빈센트 반 고흐 지음 | 이승재 옮김

“사랑하는 테오야,

정겨운 편지와 동봉해준 50프랑 지폐, 고맙게 잘 받았다.

네게 쓰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그래 봐야 무슨 소용인가 싶어졌다. 그저 대표 양반들이 너를 다시 호의적으로 대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네 가정 생활이 화목하다고 설명하려고 애쓸 필요 없다. 좋은 면도, 아닌 면도 있는 걸 나도 잘 아니까. 게다가 아파트 5층에 살면서 아이를 키우려니 너나 제수씨나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

그러니 중요한 일이 잘되고 있다면 내가 왜 덜 중요한 일로 고집을 피우겠니. 내 말은, 다시 차분하게 그 일을 논의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는 거야. 지금으로서는 할 말이 이것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두려웠고, 굳이 그런 심정을 감추지도 않았지. 하지만 그게 전부다.

다른 화가들은,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만, 본능적으로 돈 문제는 논의를 회피하려고 해. 그래, 우리는 그림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야.

하지만 아우야, 예전부터 네게 한 말인데, 최대한 잘하려고 한결같이 집중하고 노력해 왔던 자로서 엄숙하게 다시 한번 말하마. 나에게 넌 그저 코로의 그림을 파는 미술상이 아니야. 내 그림을 중개만 한 게 아니라, 창작 과정에도 관여해서 작가의 역할까지 담당했고, 곤경 속에서도 중심을 잡아 주었어. 그게 우리의 관계야. 그게 다야. 지금 같은 위기에 네게 적어도 이 말은 해주고 싶었다. 미술상들 사이가 이토록 팽팽하게 긴장된 시기에는 말이야. 작고한 화가들의 그림을 파는 미술상과 생존 화가들의 그림을 파는 미술상 사이에.

그래, 난 내 그림들에 목숨을 걸었고 그 대가로 내 이성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다. 좋아, 좋다구. 하지만 넌 일개 미술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난 널, 인간미가 넘치는 미술상으로 판단했었어. 그런데 넌 어째서……”

들어가며

테오야,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자

의문의 총상 : 대체 그 밀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1890년 7월 27일 일요일, 어둠이 완전히 내린 무렵 한 남자가 옆구리를 움켜쥐고 라부 여관으로 들어왔다. 까마귀가 나는 광활한 밀밭에서 총을 맞고 기절해 있다가, 정신이 들자 인적 없는 시골길을 홀로 간신히 걸어온 참이었다. 3층의 장기 투숙객 빈센트 반 고흐였다. 깜짝 놀란 주인장 라부가 의사를 불렀고, 가세 박사가 혈레벌떡 달려와서 응급 처치를 했고, 동생 테오가 파리에서 기차를 타고 급히 오베르로 내려왔다. 그런데 정작 사건의 당사자는 태연하게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웠다. 괜한 소란을 피웠나, 방문객이 오히려 머쓱해지는 월요일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어둠이 내리며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더니 결국 7월 29일 밤 1시 반, 서른일곱 살의 가난한 네덜란드 화가는 눈을 감았다.



구두 한 켤레
A Pair of Shoes, 1886년
캔버스에 유화, 37.5×45cm

테오는 이튿날 급히 형의 장례식을 치르고, 참석해준 형의 지인들에게 형을 기억해 달라는 의미로 그림들을 나눠 준 다음, 유품들을 정리하다가 미완의 편지를 발견했다. “난 그림에 목숨을 걸고 그 대가로 존재의 절반이 무너져 내렸는데, 넌 어째서…….” 죽을 때 형의 품속에 있던 원망 가득한 편지, 수신인은 동생인 테오, 자신이었다.

‘직장(화랑)을 그만둘 생각이요, 인상주의 화가들의 작품은 여전히 거래가 어렵다’는 테오의 편지에 대한 답장이었다. 하지만 답장은 이미 1주일 전에 왔었다. 동생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내용이였다. 그런데 진심은 원망과 불안이었던 모양이다. 이제야 뭔가 작품이 그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야 누군가 내 그림을 사주려고 하는데, ‘화가 공동체’의 꿈을 다시 펼치고 싶은데, 자꾸만 발작이 재발해서 건강과 정신을 잃어가는 현실이 갑갑했으리라. 게다가 유일한 후원자인 테오마저 부정적인 소식을 전해오자 서운했겠지. 다만, 보내지 않을 편지는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 가득한 편지를 형의 유품으로 읽게 하다니 참 알곡다. 궁고롭게도 형을 보내고 6개월 만에 테오까지 세상을 떠나고 말기에 (1891년 1월 25일) 펜시리 속상한 마음이 더 커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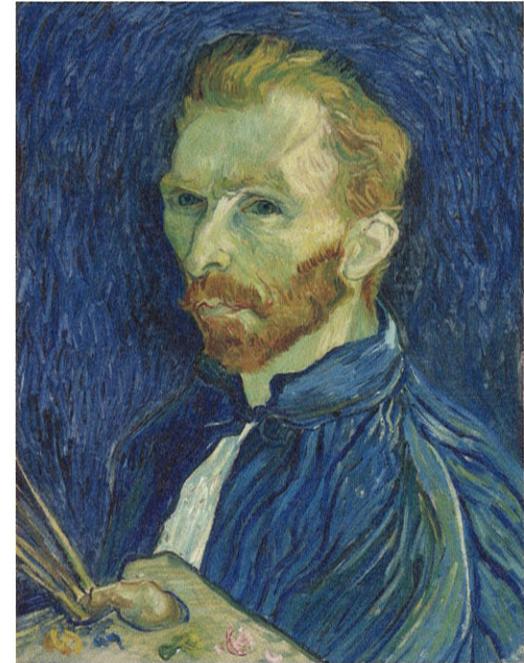
고갱과의 두 달 : 대체 반 고흐는 왜 귀를 잘랐나?

특히나 테오는 2년 전의 ‘그 사건’ 후에 형을 요양원과 정신병원에 진짜 광인들과 함께 방치했다는 죄책감을 느껴왔던 터였다. 형이 파리로 가고 싶다고 계속 부탁했지만 못 들은 척했고, 그 사이 자신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렸고 아들도 태어난 참이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형의 부탁이긴 했지만) 고갱을 아들로 보낸 것이 테오 자신이었다.

빈센트는 ‘화가 공동체’를 꿈꿨다. 예술과 생계 사이에서 고통 받는 가난한 화가들을 위해, 동료 화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공동으로 그림값을 보장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었다. 생활비 전액을 동생에게 지원받는 처지에 대한 변명이었을까. 어쨌든 반 고흐는 아들에 ‘노란집’을



자화상 혹은 테오의 초상화
Self-Portrait or Portrait of Theo van Gogh, 1887년
캔버스에 유화, 19×14.1cm



자화상
Self-Portrait, 1889년
캔버스에 유화, 57×43.5cm

마련했고, 첫 번째 동료로 폴 고갱을 뽑았다. 하지만 이국적인 마르티니크 섬이나 화려한 파리로 돌아가고 싶었던 고갱에게 아들은 매력이 없었다. 이 상황을 안타깝게 여긴 테오가 고갱을 설득했던 것이다.

1888년 10월 23일 해뜰 무렵, 폴 고갱이 아를 역에 내렸다. 그가 드라 가르 카페의 문을 열고 들어서자, 고갱의 자화상을 본 적이 있는 카페 주인 지누가 알아보고 노란집으로 안내했다. 고갱 방을 장식해 주고 싶어서 해바라기 그림을 엿새 만에 4점이나 그려가며 반 년째 고갱을 기다려 온 반 고흐는 환호했다. “이제 화가들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어. 고갱처럼 멋진 동료와 함께 지내며 그가 그림 그리는 모습을 곁에서 볼 수 있다니 얼마나 행운이야!”

그랬는데 정확히 두 달이 지난 12월 23일,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정물: 화병의 해바라기 열다섯 송이

Still Life: Vase with Fifteen Sunflowers, 1889년

캔버스에 유화, 95×73cm

밤에 빈센트는 자신의 왼쪽 귀를 잘랐다(정확히 말하면 귓불이었다). 조용한 시골 마을이 발각 뒤집어진 건 불 보듯 뻔한 일. 경찰이 노란집으로 출동했고, 고갱은 테오에게 얼른 아들로 오라고 전보를 보내고는 자신은 서둘러 아를을 떠나 버렸다. 크리스마스의 악몽 같은 사건이었다.

반 고흐는 대체 왜 귀를 잘랐을까? 우울증이 심했던 빈센트가 고갱이 그린 <해바라기를 그리는 반 고흐>를 보고 '분명히 나인데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분노했다고도 하고, 테오의 결혼 소식에 외톨이가 될까 봐 두려웠다고도 하고…… 확실한 건, 고갱은 노란집에 오고 나서 채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아를을 싫어했고 반 고흐가 이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고갱은 이 기분 좋은 마을 아를, 우리가 함께 지내는 노란집, 특히 나한테 실망한 것 같아."

고흐는 절망했던 것 같다. 고갱과 함께 만들어 가려던 꿈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는데, 이 꿈은 테오를 위해서라도 꼭 성공해야 했다. 동생에게 후원을 받은 지 10년이 가까워지는데 제대로 그림 1점 팔지 못한 채 재료비만 쏟아붓는 중이었고, 하필이면 '몽티셀리처럼 물감을 반죽이라도 해놓은 듯 두텁게 칠하는' 채색(임파스토 기법) 때문에 물감 값을 더 보내라고 끊임없이 독촉하는 상황에 대한 타개책이었다. 그래서 두 달 동안 참았을 것이다.

하지만 테오도 이런 상황을 진즉에 알고 있었다. 고갱이 그림을 팔아 달라며 미술상인 자신에게 따로 쓴 편지에서, 형의 열정과과는 대조적인 냉소와 비아냥을 읽었다. 그런데 동생 역시 형을 위해서 어떻게든 상황을 해결해 보려고 홀로 고군분투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자!”

테오는 형 빈센트를 사랑했다. 까탈스럽고 종잡을 수 없고 때론 공격적이지만, 미치광이 같은 행동 아래 감춰진 상처받은 영혼을 알았기에 안타까워했다. 유치할 정도로 거친 붓질 아래 숨겨진 천재성을 보았기

에 형의 실패에 함께 아파했다. 하지만 너무나 극단적인 성향이어서 대체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는 예민한 형에게는 조심스러운 격려 외에는 자유롭게 건넬 수 있는 말이 적었다. 형은 단순한 조언조차도 때로는 왜곡하고 격분했으니까.

빈센트가 왜 남들처럼 평범하게, 적당히 원만하게 사는 게 힘들었는지 정확히 알 방법은 없다. 그저 여러 원인을 추측해 볼 뿐이다.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죽었던 1살 위 형의 무덤이 창밖으로 보이는 집에서, 생일 때마다 축하가 아니라 어머니의 통곡을 들으며 자랐기 때문일까. 유달리 예민한 감수성 탓에 사소한 사회적 신호들을 무던하게 흡수하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영 사회 밖으로 튕겨져 나갔는지도 모르겠다.

다만 빈센트가 끊임없이 불화와 문제를 일으키는 내내, 테오는 형의 곁을 지켰다. 27세 늦은 나이에 화가가 되겠다는 무모한 선언을 응원했고, 팔릴 만한 예쁜 그림이 아니라 칙칙한 그림만 고집스럽게 그려도 이해했고, 수년째 발전이 없는 캔버스를 보고도 힐난의 말을 꼭 참았고, 그런데도 끝없이 이어지는 하소연과 비난과 요구도 묵묵히 들었다. 그렇게 10년째 외면받던 형의 그림이 드디어 1점(《붉은 포도밭》) 팔리고, 자신도 가족과 갓난아기를 데리고 네덜란드로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평화로운 일요일 밤, 형의 사고 소식이 날아든 것이다.

1872년 9월, 열아홉 살의 형 빈센트와 열다섯 살의 동생 테오는 헤이그의 스페베닝언 바닷가를 걷다가 풍차 앞에 멈춰서서 약속했다. “우리, 서로에게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자” 그렇게 시작된 편지 교환이 평생 이어졌다. 한때 ‘빈센트 반 고흐’의 자화상인 줄 알았던 그림이 ‘테오도르 반 고흐’의 초상화였을 정도로 서로 닮은 형제.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 주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실패했던 삶이 오롯이 느껴져, 한없이 기뻐지고 한없이 슬퍼진다.

붉은 포도밭

The Red Vineyard, 1888년
캔버스에 유채, 75 × 93cm

